

‘핫플’ 강진 마량항, 서남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마량놀토수산물시장·전국 규모 낚시대회 등 관광 가능성 확인 해양 복합공간·푸소 빌리지·호텔 등 2027년까지 442억 투입

강진군이 마량항을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마량놀토수산물시장과 전국 규모 낚시대회 등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최근 마량항 일원에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량면 해양수산 분야 추진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마량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마량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는 마량면 이장단과 전제영 강진군 해양수산과장, 정삼군 마량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마량항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442억여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마량항에는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진행한다.

이곳에는 해양 복합공간 ‘마린 콤플렉스’와 ‘스카이파크’ 등 해양관광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푸소(FU-SO) 빌리지’를 조성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관광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상록수림으로 유명한 마량면 까막섬에는 49억원을 들여 수상교와 해상둘레길을 조성한다.

강진의 대표 관광행사인 ‘마량놀토수산물시장’에는 7억원을 들여 야외무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마량 주민들의 어촌 소득을 높이고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는 ‘숙마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서도 방파제와 물양장을 확충하

고 공동 작업장도 신축한다.

수협 저온 친환경 위판장 건립에는 30억원을 투입하고, 해양구조대 구조선 건조에는 8억원을 들인다.

정삼군 지역발전협의회장은 “마량면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을 통해 마량면이 관광객과 주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제영 강진군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마량면 소재 해양수산분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6월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비공개 낚시대회를 통해 관광객 661명, 지역경제 유발 효과액 6610만원을 기록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남은 10개 대회를 더 철저히 준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인파로 북적이는 강진군 마량 놀토수산물시장. (강진군 제공)

나주 남평 지식천에 36홀 파크골프장 내년 6월 완공



나주시는 지난 16일 남평읍 서산리 103-1번지 일원에서 '남평 지식천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나주시 제공)

30억 투입 명품 골프장 조성 도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

나주시가 남평 지식천에 36홀을 갖춘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6일 남평읍 서산리 103-1번지 일원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평 지식천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남평 지식천 파크골프장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며,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파크골프를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체육공간 확충사업의 하나로 지식천 파크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다.

나주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파크골프 동호회원은 19개 클럽에 약 8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공식 허가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빛가람동 호수공원 인근 1곳(9홀) 뿐이어서 동호인들의 아쉬움이 컸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36홀 규모 남평 지식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착수했다.

2023년 8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남평읍 주민협의체, 나주시파크골프협회의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난 5월 완료했다.

착공식에는 윤병태 시장, 이재남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남평읍 기관·사회단체장, 나주시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남평 지식천 파크골프장을 친환경 명품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며 “하천 부지 내 체육시설인만큼 조성 이후 운영, 환경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은 복지라는 철학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식천 관광 사업과 연계해 전국 규모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체육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구내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낙조·해변·해송... 추억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오토캠핑장·해수찜치유센터 등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품은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이 개장했다.

함평군은 최근 돌머리 해수욕장 개장식이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수상무대에서 개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이남호 함평군의회 의장과 초청인사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관광객,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은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로, 깨끗한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 상쾌한 소나무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함평 대표 여름철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수욕장과 어린이놀이터, 무지개 갯벌탐방로, 오토캠핑장, 해수찜치유센터, 주포한옥마을 등 다양한 해양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갯벌체험, 뱀장어잡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은 천혜 자연환경을 보유한 함평 대표 여름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다. (함평군 제공)

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을 신규 채용하고 LED 전광판을 통해 해수욕장 안전수칙과 일기예보 필수 정보를 신속·정확히 전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기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치매치료 지원’ 120%→140% 확대

(소득기준)

장흥군은 전남형 치매 돌봄체 종합대책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로 치매 돌봄 강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금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 내에서 실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장흥군민 중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 및 치매치료 약

명이 기재된 처방전, 세부내역 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을 가지고 장흥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여 소득기준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으로 치매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장흥군 치매안심센터 061-860-6498.

/장흥=김영희 기자 kykim@kwangju.co.kr

장성군, 농업인 ‘농산물 가공 기술교육’

농식품 판매 인·허가, 밀키트 상품화 기술, 현장 견학 등 총 10회



장성군이 지난 16일부터 농산물 가공·창업 희망자 대상 ‘농산물 가공 기술교육’을 시작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지난 16일부터 농업인회관 1층에서 농산물 가공·창업 희망자 대상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농식품 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 식품 위생 및 안전교육, 에스엔에스(SNS) 활용 마케팅, 지역 농특산물 ‘밀키트’ 상품화 기술, 현장 견학 및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주 1회씩 총 10회를 진행해, 오는 9월 24일 교육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장성군은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 상품화 등 창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데 유용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산물 가공 상품화 전문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자’에서 ‘판매자’로 발돋울 수 있도록 돕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 주거 취약층에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군-에스제이이엔지, 무료 설치 지원 협약...5년간 안전 점검



담양군은 ㈜에스제이이엔지와 지난 16일 주거 취약계층에 태양광 발전설비 무료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에스제이이엔지(대표 조승준)와 지난 16일 주거 취약계층에 태양광 발전설비 무료 설치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가구를 비롯한 취약계층 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3kw),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와 전기료 절감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담양군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에스제이이엔지는 5년 동안 매년 5가구씩 총 25가구에 태양광 설비·설치와 5년간 무상 관리 등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금성면에 자리한 ㈜에스제이이엔지(대표 조승

준)는 일반전기 공사업과 태양광 전문기업이다. 그동안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담양군에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조승준 대표는 “앞으로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에스제이이엔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주거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성면에 자리한 ㈜에스제이이엔지(대표 조승